



김제시 보건소,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 강화

김제시 보건소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과 기저질환자들의 건강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판단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폭염 대응에 나섰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전화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문자 발송 등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여 비대면 건강판단 상담 시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교육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경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홍보 펼쳐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2일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이륜차 교통안전 홍보 교육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당부 및 신호 위반 및 중양선 침범행위 절대 금지 등과 이륜차들의 주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초점을 맞춰 집중 홍보 교육에 나섰다.

이동민 서장은 “일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는 이륜차 운전자들로 인해 보행자 및 다른 차량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및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버스 승강장 에어커튼 추가 설치

남원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내권 주요 승강장 30개소에 에어커튼을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올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버스승강장 15개소에 에어커튼 설치를 완료하여 무더운 날씨 속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왔으며, 이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공설시장, 남문로가 등 시내권 주요 승강장 30곳에 에어커튼을 확대 설치를 추진 교무대위가 가기 전에 신속히 설치를 완료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에어커튼은 승강장 안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작동되고, 내부의 무더운 공기 또한 순환시켜준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전달'

진안군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노후 차량 운행 3개소

진안군은 2월 용담댐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3대를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7월 6일 진안군-용담댐 수자원공사가 맺은 협약식의 결실이다.

군은 관내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끝에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종래)에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1대당 3,300만원씩 총 3대에 9,900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협약식을 맺었다.

차량에는 어린이 안전시설까지 설치를 원료해 어린이

들의 통학을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차량을 지원받은 드림케어, 진안 중앙, 주천지

연아동센터는 용담댐 수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로 차량을 폐차하거나 노후화 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그동안 불편함이 많았던 지역이다.

군은 이번 차량 지원을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문제

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여러분 환경에 처한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지원해준 용담댐지사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우리 군이 들봄 공백 해소와 아동이 안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향교유림·문화재돌봄사업 단행 환경정비

진안군은 지난달 29일 진안향교에서 유림과 문화재돌봄사업단(전북동부권)의 지원으로 향교 환경정비 및 문화재 복원활동을 진행했다.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 소유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보호하여야 함을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관내 문화재 소유자 상당수가 고령자이고 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문화재 담당 부서의 개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 5월 돌봄사업단(전북동부권)과 문화재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리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문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정비 및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 삼계면,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동체 교육·포럼 개최



삼계면이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동체 교육 및 포럼을 최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삼계마을공동체(대표 김진덕)

가 임실신활력주민단에서 주진하는 2021년도 농촌신활력

플러스 공동체 및 춤형 지원사업 1차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었던 삼계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에 이은 2차 교육이다.

공동체 간의 화합을 위한 포럼을 중심으로 삼계마을공동체 회원 20여 명과 함께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만큼 마스크

착용, 명부작성,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

수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의 주요 내용은 마을주민 화합 및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지역민의 의식변화 부족, 세대 간 소통 결여, 지역민

과 귀농?귀촌인의 의식

차이로 일어나는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포럼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긍정적, 부정적 의

견을 공유하고 주민과 마을 출신 향우와의 인적 인프라 구

축으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소동아리(부각, 콩비자활

용, 상여소리) 또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전통문화의 역사

성 회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의용소방연합회,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관할 의소방대연합회가 2일 춘추골 체육관에서 백신예방접종자 안내 및 질서유지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은 무더위 속에서 접종센터 출입자 발열체크와 손 소독을 실시하고 접종자 예진표 작성과 의사의 문진 안내를 하는 등 백신예방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했다.

의용소방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예방접종이 안전한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 오전과 오후 각 4시간씩 접종센터 지원근무에 적극 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